한솔교육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방문교사

**1. 본인이 참여한 다양한 조직(학교, 동아리, 직장 등)중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택하고 그 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조직을 위해 본인이 기여한 바는 무엇입니까?**

중학교 때, 학급 내에서 학기 말마다 다과파티를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반장이었던 터라 선생님께서 제게 과자와 음료를 사오도록 시켰습니다. 반 친구들 가운데 채식만 하는 친구 한 명이 있었기에, 과일과 견과류도 같이 사가서 그 친구만을 위한 다과상을 따로 차려 주었습니다. 덕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즐거운 다과파티가 될 수 있었고, 소홀하여 남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꼼꼼하며 남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지녔습니다. 고입시험을 앞둘 때는 친구에게 1:1 방과 후 보충 수업도 해주며, 교육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2. 도전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대학생 때 6박 7일여정의 제주도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겨 하는 편이 아니라 부실한 체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도전 정신을 기를 겸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며 인생을 너무 안일하지 살지 않고 있나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은 일이기에 일부러 자청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서 고될 때마다 다른 참가자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협동심과 굳건한 정신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충전의 계기가 되어 평생 잊지 못 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어 스스로가 대견스러웠고, 무슨 일을 하든 자심감이 붙게 되었습니다.   
  
**3. 대학생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대학 입학 후 잦은 축제, MT, 술자리가 제 발목을 잡아 첫 학기에서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음 학기에서 마음을 다잡고 과 1등을 하며 철없는 방황을 이겨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알바비로 교통비와 생활비로 그 날의 부끄러운 경험이 저를 쉽게 굴복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자교육, 독서논술교육을 지도하며 재능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은 기본교재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 교재를 바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지루해 하는 일부 아이들을 고려하여, 제가 직접 [보충/심화]자료를 제작하고 프린트로 교부하여 부록 교재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 꿈은 언제나 교육자였습니다. 또한 대학 내 봉사 활동 동아리에서 7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 어린이집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4. 한솔교육에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꾸준히 투자하여 자기계발을 한 경험을 기술하여주십시오.**   
  
- 방문교사로 활동하며 현상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관리직과 업무개발을 병행하여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또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글 및 국어교육(대학전공), 논술교육(대학전공), 한문교육(한자자격증소지), 역사교육(한국사자격증취득예정) 등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바, 실력으로 인정받는 교사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